

지성 대종사 21주기 추모재

선운사 "가르침 잊지 않고 정진"

조계종 24교구본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1월 4일 동안거 포살법회와 태허당 지성 대종사 21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열린 이날 포살법회에는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참당암, 도솔암, 석상암 등 산내암자 스님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 학인스님, 말사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포살법회는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강주 재연 스님을 포살법사로, 예경삼보에 이어 조계종단의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십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 독송이 진행됐다. 사부대중은 계율을 준수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을 다짐했다.

한편 포살법회 후에는 선운사 주지를 역임하며 선운사의 중흥을 이끌었던 태허당 지성 대종사 21주기 추모재가 봉행됐다. 추모재에는 선운사 한주 재곤, 재덕 스님 등 원로스님들과 법경 스님, 법만 스님을 비롯한 문손스님,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지성 대종사의 유지를 기렸다.

태허 스님의 문도를 대표해 경우 스님은 "스님의 낭랑한 염불소리와 경책의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데 벌써 21주기를 맞았다"며 "생전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단 발전 매진하는 해로"

원효종, 1월 9일 신년하례법회

원효종이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열어가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우석)은 1월 9일 화합과 소통을 기원하는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정광 스님과 원로원장 창혜 스님, 총무원장 우석 스님, 종회의장 운오 스님, 부산교구원장 석불 스님, 종단 소임자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종정 정광 스님은 "역사 깊은 종단 사부대중은 시작도 끝도 없는 이치를 알아 항상 불심에 젖어 실천행으로 원효보살도 정신을 결사해 나가자"고 법문했다.

총무원장 우석 스님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승가의 덕목인 종단의 화합과 소통을 기원하는 신년하례를 올리게 돼 감사하다. 종단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주불교 연등축제 3일 문화행사로 확대"

Interview

신임 제주불교연합회장 석용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주 봉축 행사기간 늘려
더 많은 불교문화 체험 제공
연합회 5개 종단 화합 방점
적극 소통하며 공의 수렴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는 한국불교만의 고유한 문화이고, 국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마당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동안 단 하루만 축제를 개최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제주도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하루가 아닌 3일간의 문화행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제주도 발전과 도민 안녕을 기원하는 신년하례법회'에서 신임 제주불교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천태종 문강사 주지 석용 스님. 스님은 회장 취임 각오를 본지에 이 같이 밝히며 '불교문화 창달'에 방점을 찍었다.

석용 스님은 얼마 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3호 지화장 보유자로 인정됐다. 유네스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에 필요한 장엄 전통지화부문 이수자이기도 하다.

스님은 오래 전부터 한국전통지화보존연구회장을 맡아 전통지화의 가치를 알리고, 지화를 연구하는 등 불교문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수행해왔다. 이 같은 문화활동으로 닦은 기반이 제주불교계의 문화창달 노력으로 이어진 셈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진 않았지만 대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제 장기인 지화도 이에 해당하고 연등회의 가장 핵심을 담당하는 등 만들기, 만다라 그리기 등 불교문화 콘텐츠는 다양하니까요.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는데 이제는 제주도에도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문화포교 시대에 걸맞는 일이기도 하죠."

이처럼 제주불교계의 우선과제로 '문화 확대'를 꼽은 석용 스님은 장기적으로 종합불교회관 건립이라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주불교계의 한결같은 고민이라는 게 석용 스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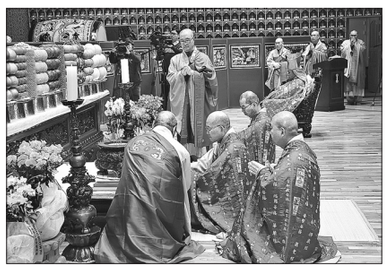
"한 단체나 조직이 지역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거점이 중요합니다. 거점이 없으면 구성원들이 아무리 의기투합한다고 해도 끝내 흩어지기 십상이죠. 거점을 바탕으로 산하조직들의 공간이 생기면 소속감도 더 부여되고, 주도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수월합니다.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까지 갖춘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석용 스님은 끝으로 연합회 내 5개 종단(조계종 · 태고종 · 천태종 · 법화종 · 일붕선교종) 소속 사찰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회원 화합에도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임 회장스님들께서도 항상 연합회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저 역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의를 모아내는 데 힘쓰겠습니다."

상월원각조사 107주년 탄신법요

천태종 구인사 광명전서 2만여 대중 유지 되새겨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이 상월원각조사전에 헌향하고 있다.

천태종이 고려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중생구제 정신을 이어 한국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1월 3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7주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홍파 스님과 사무총장 지민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 송영길 · 오영훈 · 이헌승 · 이후삼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 정 · 관계 인사, 류한우 단양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 선상신 불교방송 사장 등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우리 종단의 종지종통이 3대 지표를 통해 더욱 밝게 드러나고, 주경야선의 정진으로 더욱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으니 이 모든 공덕의 뿌리는 대조사님의 자애하신 가르침"이라며 "오늘 대조사님의 탄신 107주년을 봉축하며, 모든 종도가 일심으로 대조사님의 광활하신 원력을 더욱 건실히 배우고 전해 각자의 삶을 새롭게 하고 국운을 융창케 하며 인류의 평화를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어 총무부장 월장 스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을 낭독했다. 문재인 대통령 축전에서 "대조사께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중생구제의 큰 뜻을 세우시고 천태종을 중창하셨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천태종 불자님들도 평화와 번영의 꽃을 피우도록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교계 지도자, 정 · 관계 인사, 지자체 관계자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부회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대조사께서는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큰 원력을 펼치셨고, 천태종을 중흥하셨다. 천태종은 그 정신을 이어 이 시대 불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새해에도 세상의 평화가 인류의 행복을 위해 무량한 자비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윤호섭 기자

"복된 마음으로 한 해를"

화엄사 · 순천사암연 공동 신년하례법회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와 순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보리)는 1월 5일 화엄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불교단체와 학생들에게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200여 대중이 참석한 신년하례법회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복된 마음을 갖고, 불제자답게 사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참석 대중을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년포교 활성화 기금 쾌척

송일호 동국대 교수불자회장 포교원에



송일호 동국대 교수불자회장은 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청년포교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송 회장은 "한국불교의 어려운 현실은 청년불자 층이 적은 데 있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학생 불자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홀몸어르신 돕는 강천사

1월 3일, 순창군청에 라면 100상자 기탁



순창 강천사(주지 종고)는 1월 3일 순창군청을 방문, 새해를 맞아 홀몸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준비한 라면 100상자를 기탁했다. 종고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천사는 이외에 매년 5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사)대한불교 능인종 교육원

2019학년도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능인종 교육원에서는 신라의 소리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 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자 합니다.

자 격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
개강일 2019년 2월 23일 오후 3시 (음력 1월 19일 토요일)
일 시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주 2회 강의)
장 소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 (진영포교당)
수강료 월10만원(수시모집가능)
강 사 수암, 일산, 덕우(외전위주 강의)
과 목 중급반 사시불공, 49재및 천도제의식. 관음시식등, 사물 다루는 법 – 실전위주
상급반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 개인지도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사 진영포교당 (055) 343-2267~8700
수 암 010-5488-7060

사단법인 대한불교능인종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호 서호
부종정 법두 수암

승조원원장 법상 심곡
원로원장 법두 수암
총무원장 법웅 정관

연수원장 일월 교육원장 백양 법붕 포교원장 백담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총무부장 원도 총무국장 무경 사회부장 정광
부산교구종무원장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월명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전화 055)532-4414 휴대전화 010-3507-2837